

저자 (Authors)	남인현 Nam In Hyeon
출처 (Source)	국제언어문학 ,(9), 2004.06, 133-154(22 pages)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9), 2004.06, 133-154(22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제언어문학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59133
APA Style	남인현 (2004). 이광수의 원호대사에 나타난 불교정신. 국제언어문학(9), 133-15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8 16: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이광수의 「원효대사」에 나타난 불교정신

남인현*

〈目次〉

1. 서론
2. 춘원의 「원효대사」에 나타난 불교정신
3. 춘원의 「원효대사」 분석
4. 결론

I. 서론

춘원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로 시도되어 왔지만, 그 대부분이 어떤 부분적인 논의에 그치거나, 혹은 논리보다 다소 감정을 앞세워 지나친 긍정이 아니면 과도한 부정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양하여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작가론을 염두에 둘 때, 그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 그 시대 상황을 배제하고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춘원이 투철한 역사의식이나 상황 의식을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하는 선입견으로 그를 일방적으로 재단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가 처해 있었던 시대 상황이 작가나 지식인으로 하여금 초연한 위치에 들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드레 지드는 「국민주의와 문학」이라는 글에서 모든 위대한 문학은 가장 국민적이며 보편적이고 또 개성적인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적>이라는 용어는 <민족적>이라는 용어와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다. 원래 국민주의나 민족주의나 하는 용어들은 내셔널리즘이란 용어의 번역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이라 할 때는 한 국가 집단의 구성원을, 그리고 민족이라

*국제언어문화회 회원, 교육학석사.

할 때는 어느 특정한 민족집단의 구성원을 뜻하는 것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민족으로 한 국가집단이 성립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의 의미상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단일 민족으로써 국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과 민족이 각기 뉘앙스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문학 한국문학(조선문학), 민족문학 등의 용어가 우리 문학사에서는 다소 뉘앙스를 달리하면서도 대체로 비슷한 개념으로 넘나들며 쓰여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어떤 형태의 문학이 되었건 그것이 위대한 문학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적 고유성에 투철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문학적 보편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족적, 고유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춘원의 역사소설 「원효대사」이다. 「원효대사」는 조선어로 쓰여진 소설이다. 조선어로 글쓰기가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절대조건이었던 시절에, 춘원이 「무정」을 발표했던 매일신보에 1942년 3월 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184회(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休載)에 걸쳐 연재한 장편소설이다. 진덕여왕 8년(A.D 654) 경부터 무열왕 5년(A.D 658) 경까지 약 5개년의 기간을 취급하고 있다. 백낙청은 이 작품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논평하고 있는데 그 일절을 소개한다.

「원효대사」는 여러 가지 허황되고 때로는 역겨운 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전반부에 있어서는 이광수의 가장 훌륭한 업적 가운데 꼽힐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원효대사의 인물을 자기 변호 내지 심리적 변상의 도구로 私用化하지 않고 끝끝내 우리 민족의 가장 원초적인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소극적이거나 꺾을 수 없는 민족적 저항운동의 좌표를 제시하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라면 이 책은 민족문학의 고전이 되었을 것이다. (중략) 요석공주와 아사가 틈에서 원효의 女難은 계속되고 <음욕>이나 <자비>나 하는 설문 방식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중략)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던 소설이 이렇듯 허황된 이야기로 끝 아닌 끝을 맺는 것은 곧 작품 「원효대사」의 자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광수의 친일 행위가 - 그 자신의 심경이야 어떠했든 간에 - 그가 주장한 것처럼 민족을 구하는 길이 아니고 결국 계몽문학가로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행위였다는 결정적 증거이며, 역사의식과 현실

1) 천이두, 「한국소설의 관점」, (문학과 지성사, 1980.) pp. 33-34.

감각을 상실한 역사소설의 운명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

다소 장황하게 인용한 것은 이 작품에 대한 많은 논조가 대체로 이와 비슷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선입견이 작용한 과장된 평가라 아니할 수 없다. 원효를 춘원이 자기 변호 내지 심리적 변상의 도구로 私用化했다든지, 원효가 요석공주와 아사가 틈에서 女難을 계속하였다는 주장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사용화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도 별로 없다. 더구나 춘원의 친일 행위와 이 작품을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하겠다.³⁾

원효는 학승으로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민중교화승으로서 당시 왕실 중심의 귀족화된 불교를 민중불교로 바꾸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 종파주의적인 방향으로 달리던 불교이론을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회통시키려 하였는데 그것을 오늘날 화쟁사상이라 부르며, 이것은 그의 일심사상·무애사상과 함께 그의 사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사상은 너무나 다양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나 항상 ‘하나’라는 구심점을 향하였고, 화쟁과 자유를 제창하였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치하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신문연재소설이라는 대중성을 바탕으로, 춘원이 역사소설 「원효대사」속에 민족주의와 불교정신을 어떻게 투영시켰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불교의 팔정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조가 접목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원효대사」의 문학적 가치를 따져보고 한국문학사적 위치를 정립시켜보고자 한다.

II. 춘원의 「원효대사」에 나타난 불교정신

「원효대사」는 求道라는 커다란 명제를 추구하는 소설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삶을 위한 예술을 지향한다. 구도는 의미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 행

2) 백낙청, 「역사소설과 역사의식」(문학과 지성 2호, 1967, 봄호.) p. 40.

3) 광근, 「이광수 역사소설 속의 신라정신」(동악어문론집 38집, 동악어문학회, 2001.)

4)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편,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98) pp. 2122-2123.

위이기는 하나,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쪽으로 향할 때, 그것은 사회적 연관성을 지니면서 대승적 실천행위로 연결된다. 대승적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원효가 실천한 것이 바로 일심사상이요, 화쟁사상이요, 무애사상이었다.

원효는 이 사상들을 통하여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였고, 이 세 가지 사상은 그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 일심사상과 무애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정신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있는지 알아보자.

1. 일심사상

원효의 일심사상은 그의 저서 <금강삼매경론>·<대승기신론소> 등 그의 모든 저술에서 철저하게 천명되고 있다. 인간의 심식을 깊이 통찰하여 본각으로 돌아가는 것, 즉 귀일심원(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육바라밀⁵⁾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만법귀일·만행귀진을 굳게 믿고 사상과 생활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일심이야말로 만물의 主樞이며, 일심의 세계를 불국토 극락으로 보았고, 이것을 대승·불성·열반이라고 불렀다.⁶⁾

즉, 원효에게 있어서 일심은 곧 존재의 본질이다. 중생심이 곧 일심이고一心은 곧 온갖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體이며 일심은 대승의 법인 것이다. 일심과 대승은 어떤 똑같은 하나의 절대적인 것을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이다. 원효에게 있어서 대승이란 일심으로 돌아감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일심은 불타의 세계이며 동시에 중생심이다. 따라서 이 존재의 본질인 일심은 이사일절법을 융섭한다.⁷⁾ 원효는 육바라밀 중에서도 특히 보시를 강조하였다. 다음의 본문에 그것이 보인다.

“대승보살행이란 그런 것이 아니오. 중생을 위하여서는 제 몸이 지옥이나 축생도에 들어가도 꺼리지 아니하는 것이 대승 보살행이요.”⁸⁾

5) 불교에서, 보살이 수행에서 열반에 이르는 여섯 가지 방편.

보시(普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를 아울러 이룸.

6)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p. 2123.

7) 이효령, 「원효의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15.

8) 이광수, 「원효대사」(일신서적출판사, 1995) p. 190.

스스로 대승보살행의 정의를 내리는 원효의 말이다. 원효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수행을 시작한다. 그는 끼니를 굶을 작정으로 대승보살행에 정진하거나,⁹⁾ 대승보살행을 통하여 충효를 실천하고 불쌍한 중생을 돕기에 자신의 몸을 바칠 것을 강론한다.¹⁰⁾ 또한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는 모습은 제자인 의명에게 모본이 되기도 한다.¹¹⁾ 결국 대승보살행은 신라정신의 계승으로 이어지는데 요석공주에게 당부하는 원효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공주는 이 몸보다 덕이 높으시니 반드시 이 몸보다 나은 아들을 낳으시리다.”

“황송하여라.”

“공주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시는 모양은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시리라고 생각하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에는 짐승도 자비의 빛을 발하는 것이어든,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닦으신 공주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시는 양은 사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자비상(慈悲相)일 것을 믿소. 관음상에도 아기 안으신 관음상이 있거니와 중생계의 자비상은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것이오. 어머니의 자비심, 이 몸을 낳으신 어머니는 산길에서 이 몸을 낳으시고 이 몸을 싸시느라고 당신의 옷을 벗어서 그 빌미로 돌아가셨다 하오. 이 몸을 살리시느라고 당신 몸을 버린 것이오. 저를 버리는 마음 -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니 마음이 자(慈), 괴로워하는 자식을 보는 어머니 마음이 비(悲), 외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중에 가장 간절하므로 최애일자지(最愛一者地)라고 하거니와 삼계 중생을 모두 최애일자지로 끌고루 자하고 비하는 것을 부처님네의 대자대비라 일컬었소. 공주는 지금 복중에 최애일자지를 닦으시오. 터럭 끝만한 잡념, 악심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끊임없는 염불로 마음을 막으시오. 이것이 공주의 보살행인가 하오.”¹²⁾

자비심을 통한 대승보살행의 실천, 대승보살행을 통한 중생제도, 이것이 원효가 말하는 일심사상의 실천이다.

9) 이광수, 위의 책, p. 199.

10) 이광수, 위의 책, p. 18.

11) 이광수, 위의 책, p. 265.

12) 이광수, 앞의 책, p. 129.

2. 무애사상

원효의 무애사상은 그의 사생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철저한 자유인이었다.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라고 한 그의 말을 보더라도 그의 무애사상은 짐작된다. 그는 부처와 중생을 둘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릇 중생의 마음은 원용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니, 태연하기가 허공과 같고 잠잠하기가 오히려 바다와 같으므로 평등하여 차별상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철저한 자유가 중생심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고, 스스로도 철저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어느 종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일승과 일심을 주장하였던 것이다.¹³⁾ 원효는 무애사상을 자신의 수행목표로 삼았는데 다음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무애당이라는 당호는 원효자신이 지어서 자필로 써서 문미 위에 붙인 것으로 화엄경의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라는 데서 따서 쓴 것이니 무엇에나 거칠 것이 없어야 나고 죽는 데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원효는 이 ‘무애’라는 말을 즐겨하였고 자기도 ‘무애’를 수행의 목표로 삼았다.

방안에는 가무스름한 감나무 경상 하나와 차를 끓이는 질그릇 화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경상 위에는 지필묵 뿐, 그리고 등경.¹⁴⁾

무애행의 수행은 그의 정신적 스승의 한 분인 대안대사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다음은 원효가 대안대사를 통하여 평등심과 무애행을 깨우치는 장면이다.

“왜 거기 그렇게 장승처럼 서 계시오? 좀 들어오십시오. 창녀의 집이라고 꺼 리시는 듯싶습시다마는 자비는 평등이 아닙니까. 이런 계집도 제도를 하셔야 아니합니까.”¹⁵⁾

위에서 보듯이 대안대사는 평등정신의 실천을 통한 무애행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자비심!’ 이것만이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말하는 것

13) 국어국문학회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p. 2124.

14) 이광수, 앞의 책, p. 11.

15) 이광수, 위의 책, p. 108.

이다. 너구리의 일화¹⁶⁾에도 그것이 엿보인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평등정신의 실천만이 무애행을 닦을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정한 무애행의 실천은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실천함을 제시한다.

원효는 중생을 위한 무애행의 실천만이 충도되고 효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⁷⁾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평등정신의 실천은 결국 도적과 거지까지도 삼국통일에 동참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중생구제와 평등정신의 실천만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역지사지의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서로를 용서하며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효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춘원이 살던 시대는 일제시대였다. 일제시대에 쓰여진 「원효대사」에서 춘원은 일심사상과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비심과 평등심의 실천으로 일치단결하여 일제와 맞설 것을 은연 중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Ⅲ. 춘원의 「원효대사」 분석

1. 서사구조의 검토

「원효대사」는 그 서사구조가 불교의 팔정도와 맥이 닿아있다. 그것은 제1장 제행무상부터 제8장 도량에 이르는 8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쓰인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8개장의 분류와 팔정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 장의 구성이 8개라는 공통점과 각 장의 중요내용이 팔정도의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먼저 팔정도의 어의를 살펴보고, 그 각각의 어의에 대응되는 각 장의 중요 내용을 대비하여 살펴보자.

(1) 八正道의 語義

초기불교에 있어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과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수행법이 팔정도이다.

16) 이광수, 위의 책, pp. 102-103.

17) 이광수, 위의 책, pp. 15-16.

팔정도는 여덟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ariyō atthamgito maggo; 팔지성도, 팔정도)이라고 표현되는데, 보통은 여덟 가지의 올바른 길(atthasaininatta : 팔정도)로 표현된다. 여기서 정도란 말은 中正, 眞正, 中道の 완전한 수행법이라는 뜻이고, 聖道란 성인의 도란 뜻에서 쓴 것이다.¹⁸⁾

(2) 팔정도의 어의와 「원효대사」의 각 장의 비교

1) 正 見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각(intelligence)에서 알 수 있듯이 정견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혜, 올바른 견해로서 지적으로 판단함을 의미한다.

정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야 어떻든 정견이 결국은 불교의 근본사상을 知見하는 것만은 분명하고 四聖諦가 無常, 無我, 涅槃, 苦 등의 三法印과 緣起의 법칙 등 불교의 중심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¹⁹⁾ 四諦의 知를 정견이라고 해도 큰 잘못은 아니다. 다만 정견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 인생의 진실된 이치를 정확히 관찰함으로부터 정견이 가능하다는 말이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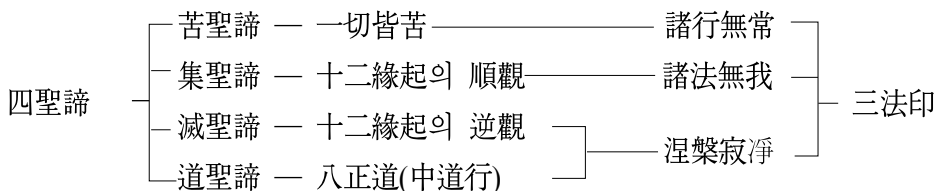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정견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찰력이 부족하면 正道가 아닌 邪道の 길을 가게 된다. 팔정도 중에서 정견이 제일 앞에 놓인 이유는 이와 같은 正見이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실천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²¹⁾

18) 고순호, 「불교학개론」(선문출판사, 1983.) p. 77. 재인용.

박영동, 「8정도 수행법과 심리치료」(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9.) p.43.

19)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동화출판공사, 1981), p. 35. 재인용.

사성제와 삼법인, 연기와의 관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20) 박영동, 앞의 책, p. 43.

21) 박영동, 앞의 책, pp. 48-49.

즉, 깨달음의 길을 통한 정도의 길로 들어섬은 정견이 있어야 올바른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제행무상장에서 한 원효와 승만마마의 다음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다.

왕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왕은 다시 말을 이어서,

“이몸과 저 아유다와는 지나간 칠 년 동안 대사를 바라고 살았소. 아유다가 대사를 사모함을 볼 때에 이 몸은 때로 질투를 느낀 일도 있었으나 그도 다 인연이요. 사랑도 인연, 미워함도 인연.”

하고 아유다를 보았다.

아유다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고 들지 못하면서,

“이 몸이야말로 세세생생에 상감마마의 몸종(待婢)이 되어서 마마를 받드오리이다. 상감마마옵게옵서 대사님 곁에 계시오면 이 몸은 마마 뒷그늘에 숨어 피시오리이다.”

“상감마마.”

원효는 소리를 가다듬었다.

“대사, 말씀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마는 허락을 하시오.”

왕은 이렇게 보채셨다.

“상감마마. 모두 마음의 장난이요.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이 이야기를 끊어야 할 것같이 영겁의 윤회에 지치셨으니 고만 인연의 줄을 끊으시오. 업보수생(業報受生)의 줄을 끊어 이번 생을 최후생으로 하시고 대비심으로 수원수생(隨願受生)하는 보살의 길을 닦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원효는 대궐에서 물러나왔다.²²⁾

이 글에서 보면 왕인 승만마마가 스님인 원효에게 보시를 통한 인연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승만마마에게 보살행을 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즉 정견을 통한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원효대사의 뜻이 들어있다.

2) 正志(正思惟)

정사유는 정견을 항상 바르게 사유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불교의 교법을

22) 이광수, 앞의 책, pp. 30-31.

진정하게 사유하여 체득하고자 하는 심리적 작용을 말하는 것이라²³⁾할 수 있다. 즉, 불교의 교법을 진정하게 사유하여 체득하고자 하는 심리적 작용을 정사유라고 할 수 있다. 바른 생각이 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이는 번뇌무진장에서의 원효와 심상과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새 왕이 즉위하여서 전왕의 자취가 차차 스러질수록 원효는 승만왕을 위하여서 슬퍼함이 더욱 간절하였다.

“노시님(老師主)은 평생에 슬퍼하시는 일을 못 뵈었는데 근래에는 매양 슬픈 빛을 보이시니 어찌하신 일이신지.”

하고 상좌 심상도 마침내 물었다.

“내 법력(法力)이 부족함이 설어서.”

원효는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무엇이 법력이 부족하시다 하심인지.”

“대행대왕께서 그날 것처럼 간절히 물으시는 것을 내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하여 드렸구나.”

“대행마마께옵서 이처럼 간절히 청하시는 것을 왜 그리하오리다, 하고 대답을 아니하셨습니다. 옆에서 등골에 땀이 흘렀습니다.”

“허, 그러니까 내가 법력이 부족하단 말이다. 내게 선혜비구만한 자신이 있으면야 세세 생생에 같이 하오리다 하는 허락도 하겠지마는, 내가 내 속을 들여다 보아도 번뇌가 가득하여서 장차 무엇이 될지 모르거든 어떻게 남더러 나를 따르라 하겠느냐. 하물며 내가 세세생생에 임금으로 모시던 어른을 만일 악도(惡道)로 인도한다 하면, 그런 궁흉 극악한 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아뢰인 게다.”²⁴⁾

원효대사가 승만마마를 혹시 악도(惡道)로 인도할까 두려워서 만족할만한 대답을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것은 올바른 정사유를 위한 번뇌의 과정이다. 이는 원효대사가 불교의 교법을 진정하게 사유하고 체득하고자 하는 심리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애행의 기반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3) 和辻哲郎, (「원시불교의 실천철학」 동경, 암파서점, 1971) pp. 261-262. 재인용.

24) 이광수, 앞의 책 p. 45.

3) 正語

정어는 마음 속의 바른 생각을 바르게 말한다는 뜻이다. 마음 속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말과 몸으로써 하게 되는데, 몸으로서의 행위보다는 말로서의 행위가 앞서기 때문에 정어가 正業에 앞서서 팔정도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어는 거짓말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나쁜 말, 꾸밈 말을 떠난 말을 뜻한다. 즉, 바른 사유에 의한 바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파계장에서 요석공주가 원효에게 한 주장에서 우리는 정어를 살펴볼 수 있다.

“원효사마는 이 몸을 음탕한 계집이라고 생각하시오?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명복을 빌고 정절을 지킬 몸이 다른 남자에게 뜻을 두는 것을 음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도 달게 받사오리다. 그러나 거진 부자가 동시에 전몰하고 그 집을 이어서 분묘를 지킬 자손이 없고, 이 몸도 죽으면 무주고혼이 되오. 다행히 가륙하신 이의 씨를 받는다면, 거진의 집 분묘에도 향화가 아니 끊어지고 나라에도 큰 사람 한 분을 길러 바칠 것 같소. 원효사마 이 가슴이.”

하고 공주는 손을 들어 제 가슴에 대며,

“이 가슴의 젖이 반드시 우리 나라에 큰일할 사람을 먹일 것 같소.”²⁵⁾

위의 대화에서 보면 요석공주가 원효에게 꾸밈없이 자신이 생각한 바를 전달하고 있다. 즉 자신은 음탕한 생각에서 원효와의 인연을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륙하신 이의 씨를 받아 나라에 큰 사람 한 분을 길러 바치고 싶다는 원을 원효대사에게 청하고 있다. 나라를 위하는 꾸밈이 없는 마음을 그대로 원효에게 전달한 요석공주의 정어의 실천이다.

결국 이것이 이루어져 설총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탄생되어 이두를 만들어 신라의 주체성을 높인다. 이는 춘원의 속마음이기도 하다. 즉 자신의 작품인 「원효대사」를 읽고,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가륙하신 이의 씨라고 생각한 듯하다.

25) 이광수, 앞의 책, p. 123.

4) 正業

정업의 어의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²⁶⁾

정업은 바른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마음속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과 몸인데, 옛말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듯이 말과 행동은 일치되게 해야 인격 완성자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정업은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을 떠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원래 業이란 말은 앞서 정사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身口意 三業을 포함하는 말로 보아지기 때문에 정사는 意業, 정어는 口業, 정업은 身業을 가르키는 말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⁷⁾ 즉, 언행일치가 외부로 나타난 것이 정업이다. 다음의 요석궁장에서의 왕과 요석공주, 그리고 왕후의 대화에서 원효의 정업의 실천을 엿볼 수 있다.

“복성거사?”

왕도 놀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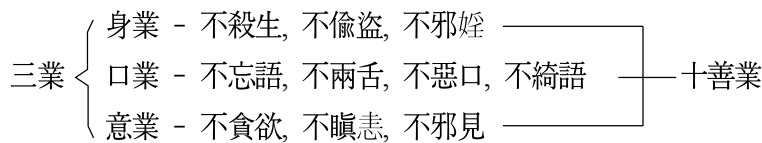
“그러하오.”

하고 왕후는 이 말을 이 자리에서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듯이 정신을 가다듬어,

“기원사(祇園寺) 묘신니(妙信尼)에게 들은 말씀이온데 원효대사가 파계를 하였노라고 말하고 가사 장삼을 벗고 거사가 되었다 하오. 십 년 동안 대사의 수종을 들던 심상사(審祥師)더러도 내가 이제 파계승이 되었으니 남의 공양을 받을 수 없다고 떠나가라고 하여도 심상사는 파계를 하셨거나 아니하셨거나 원효사마를 모신다고 굳이 따르다 하오. 거사가 중을 부릴 수가 있느냐, 전에는 내가 네 스승이었으나 계를 깨뜨린 바에는 내가 도리어 내 스승이라고 심상에게 절을 하였다 하오. 원효대사가.”²⁸⁾

26) 박영동, 앞의 책, p. 44.

27) 三業과 十善業과의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十善業의 반대개념은 佛敎의 十惡業이며, 이것은 불교의 윤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박영동, 앞의 책, pp. 52-53.

위의 대화에서 보듯이 원효대사는 국사로서의 신분을 내던지고 스스로 복성거사라 칭하여 속인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스로 파계한 것에 대한 죄를 반성한다는 의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준 正業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속인으로의 환속은 후에 원효대사가 무애인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5) 正命

정명은 바르게 삶을 영위하는 것, 올바른 직업이라는 의미가 된다.²⁹⁾

정명은 그릇된 생활태도를 버리고 정당한 생활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바른 견해, 즉 正見을 가지고 마음으로는 바르게 생각하고, 입으로는 바르게 말하고, 몸으로는 바르게 행동하며 생활하라는 뜻이다. 즉,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정명이다. 이는 용신당 수련장에서의 아사가와 원효와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다.

“사문 행색은 뜬구름,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정처가 없으니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소? 그러니 나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고쳐서 달리 좋은 선비(사나바)를 구하여 유자생녀하고 백년 해로하시오.

원효는 이렇게 끊어서 말하였다.

아사가는 원효의 말을 듣더니 말없이 빙그레 웃는다.

“왜 웃으시오?”

원효는 정색하고 물었다.

“원효대사만한 이가 눈앞에 있는 아사가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거늘 시험을 하시는 것이 우스워서 웃소.”

원효는 말이 막혔다. 원효는 승만여왕, 삼모, 요석공주 등 신라에서 으뜸간다는 여자들을 접하였으나 아사가와 같은 여자는 처음 본다 하였다. 이 것은 범상한 여자가 아니요, 관음화신이 아닌가 하였다.³⁰⁾

아사가는 자신의 속마음을 원효에게 표현하고 있다. 즉, 자신의 천생배필이

28) 이광수, 앞의책, p. 146.

29) 박영동, 앞의 책, pp. 44-45.

30) 이광수, 앞의 책, pp. 187-188.

원효임을 강력하게 언명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명의 실천이다. 이일은 구도자의 길을 함께하는 원효와 아사가의 정신적인 만남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된다.

6) 正精進(正方便)

정정진은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것, 올바른 노력이라는 뜻이다. 즉 앞의 정견에서 정명까지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숙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정진의 내용이다.³¹⁾

정정진은 바르게 노력한다는 뜻이다. 정견에서 정명까지를 수행하여도 그것이 일순간이 되어서는 안되고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정명의 생활을 정정진이라 한다.³²⁾ 즉, 정견에서 정명까지의 생활이 끝없이 이어지도록 실천하는 생활이 정정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랑방아장에서의 원효의 행동에 잘 나타나있다.

원효는 이러한 속에 거랑방아로 나선 것이었다. 그의 허리에는 여전히 호로 여덟을 차고 바가지 넷은 짐에 달고 뒤옹박 하나는 손에 들었다. 호로 여덟은 가나다라마바사이다. 이것은 여덟 신장의 이름인 동시에 이 백성이 살아온 역사다. 그리고 모든 음악의 기조다. 옥타브다. 악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가나다라한다는 말이다. 건들거린다, 건들먹거린다는 것은 가나다라, 가나다라마 가락에 맞춘다는 것이다.

짐에 단 바가지 넷은 밥 그릇, 물 그릇, 반찬 그릇, 국 그릇이다. 큰 것, 작은 것, 더 작은 것, 제일 작은 것을 포개면 하나와 같이 된다. 손에 든 뒤옹박은 목탁 대신이다.

길을 가다가 끼니 때가 되면 원효는 세존께서 탁발하시던 법을 본받아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 큰 집이라고 고르지 아니하고 작은 집이라고 빼어놓지 아니하고 골고루 찾는다. 딱, 딱, 딱, 뒤옹박을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을 부른다. 열 마디를 불러도 주인이 나오지 아니하면 다음 집으로 가서 또 그와 같이 한다.

31) 박영동, 앞의 책, p. 45.

32) 박영동, 앞의 책, pp. 54-55.

이 모양으로 원효는 여섯 집을 찾는다.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섯 집을 돌아서 얻어지는 것을 먹고 더 돌지는 아니한다. 만일 여섯 집을 돌아도 밥이 얻어지지 아니하면 그 끼는 굶을 작정이다.³³⁾

육바라밀을 통한 거랑방이의 생활. 원효는 거랑방이의 생활을 통하여 정정진의 자세로 더욱더 수행에 정진하게 된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무애인을 향한 발걸음이자 불교가 민중들의 생활 속에 한 발 다가서는 의미 있는 행동이기도 하다. 원효는 거랑방이 생활을 하면서 방울스님의 큰 가르침을 받게 되고, 노승의 가르침을 통하여 평등사상의 실천을 배우게 된다.

7) 正念

정념은 법에 대한 바른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올바른 결심, 올바른 기억이라는 뜻이다.³⁴⁾ 즉, 바르게 一念으로 전념하라는 뜻이다. 인간이 정견을 얻어서 정사에서 깊이 새기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으로 외부에 표출하되, 그것이 전부 바른 것이라면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리지 않도록 一心으로 전념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앞서 설명했던 팔정도의 정견구현을 위한 정정진에 전념하는 것을 정념이라 할 수 있다.³⁵⁾ 즉, 바른 생각을 잊지 않고 따르는 것이 곧 정념이다. 이는 재회장에서의 요석공주와 아사가의 대화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얼굴 속에 티끌만한 악인들 숨을 자리가 있으랴.’

공주는 이렇게 생각했다.

공주는 아사가의 원효에 대한 사랑에서 남녀의 정을 초월한 무엇을 보는 것 같았다. 저는 사나이로 원효를 보건마는 아사가는 보살로 원효를 사모하는 것이 아닌가.

원효가 아사를 두 팔에 안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공주의 마음에는 일시 놀이 일어났으나 원효가 공주의 앞에 지척에 왔을 때에 공주는 원효의 몸에서 전에 못 보던 것을 보았다. 그것은 빛이었다. 원효의 몸에서 전에 못 보

33) 이광수, 앞의 책, p. 199.

34) 박영동, 앞의 책, p. 45.

35) 박영동, 앞의 책, pp. 55-56.

던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이 빛이 공주의 가슴에 일어나던 질투의 불을 꺼버린 것이었다.

아사가의 입술에 붉은 빛이 돌고 해쓱하던 두 볼에도 홍흔이 돌았다. 공주가 정성으로 갈아 먹인 반혼향(返魂香)이 힘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공주는 얼른 아사가의 입에 제 입을 대고 침을 흘려넣었다. 이것이 세 번째다. 만일 세 번 침을 흘려넣어서 살아나지 아니하면 손가락을 끊어서 피를 흘려넣는 것이다. 내 생명을 내게 갈라준다는 뜻이다.

공주의 입에 닿는 아사가의 입은 이번에는 따뜻하였다. 아사가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사가. 아사가.”

공주는 아사가의 두 볼에 손을 대어 가만히 흔들면서 낮은 소리로 불렀다.

아사가는 눈을 떴다. 그것은 자다가 깨는 어린애의 눈이었다.

“아사가, 살아났구면.”

하고 공주는 아사가의 볼에 제 볼을 부비며 울었다. 아사가는 공주의 눈물이 뜨거움을 살에 느꼈다.

아사기도 두 팔을 들어서 공주의 몸을 안았다.

“아사가.”

“공주마마.”

이렇게 두 사람은 주고받았다. 그밖에는 말이 없었다.³⁶⁾

요석 공주는 아사가의 원효에 대한 사랑이 보살로서의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아사가 역시 이심전심으로 공주의 몸을 안게 된다. 이를 통하여 두 사람은 일심으로 원효와 함께 더욱더 불도에 정진하는 계기가 된다. 정념의 실천이다.

8) 正定

정정은 현실의 정견으로부터 정사유 내지 정념에 이르는 깨달음에로의 부단한 접근과정이 계속되어 정견과 心이 일치된 상태를 말한다.³⁷⁾

정정은 정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도 마음에 동요가 없이 완전히 안

36) 이광수, 앞의 책, p. 297.

37) 박영동, 앞의 책, pp. 45-46.

정된 一心三昧, 즉 정신통일을 의미하는데 禪定이라고도 한다.

선정의 상태란 邪俗과 雜念에서 해탈되어 眞과 法을 탐구함으로써 기쁨도 괴로움도 사라지고 정신의 순결함만이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³⁸⁾ 즉, 내적 평온이 유지되어 자아의식이 발휘되는 상태라 할 수 있다.³⁹⁾ 즉, 道의 완전한 경지에 이름을 正定の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도량장의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다.

수백 명 거지 떼가 의명의 인솔을 받아서 원효를 맞아 모두 절하고 뒤를 따랐다.

대각간 유신이 부인 지조공주와 함께 나와 원효를 맞고 수없는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길가에 도열하였다.

유신은 원효의 앞에 와서 말을 내리고 지조공주도 가마에서 내려서 형 요석공주와 만났다.

원효는 길에 무릎을 꿇은 바람과 오십 명 도적 두목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전날 죄를 뉘우치고 나라 법대로 벌을 받는다고 자진하여 결박을 지고 왔소.”

하고 또 사사마와 아사가 충신 장춘랑의 후손인 것을 말하였다.

유신은 바람과 오십 명 두목을 향하여,

“너의 죄 만 번 죽어 마땅하거나와 원효대사의 제도를 받았다는 뜻 들으시고 상감마마 분부하시기를 이로부터 나라에 충성하기를 맹세할진댄 모든 죄를 용서 하실뿐더러 각각 재주 따라 나라 일에 씩신다 하셨으니 그리 알아라.”

하고 어명을 전달하였다.

바람과 일동은 머리를 조아렸다.

바람은 왕자의 대우를 받아 서당장군(誓幢將軍)이 되고 다른 두목들도 각각 군직을 받게 되었다. 이로부터 몇 해 뒤에 신라가 백제를 칠 때에 황산(黃山) 싸움에 용감히 싸운 장수들이 이들이요, 또 죽기를 무릅쓰고 백제와 고구려의 국정을 염탐한 것이 거지 떼들이었다.

원효는 산간에 숨어서 도를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요석공주와 아사는 평생에 원효를 따르는 비구니가 되었다.⁴⁰⁾

38) Luria, H., 「The role of speech in the regulation of normal and abnormal behavior」 (New York : Liveright, 1961) 재인용.

39) 박영동, 앞의 책, pp. 56-57.

결국 원효는 의명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수백 명 거지 떼와 바람을 비롯한 오십 명의 도적 두목을 왕 앞에 데리고 간다. 이 자리에 화랑의 상징인 유신과 그 아내인 지조공주도 나와서 맞이한다. 왕은 도적들의 지난 날의 잘못을 사면하고, 바람은 왕자의 대우를 받아 서당장군에 봉하고, 각 두목들도 군직을 준다. 왕의 이같은 화합의 사면은 道의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正定과 같은 상태이다. 이것은 계층을 망라한 모든 사람이 독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바라는 춘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더욱이 원효가 요석공주와 아사가와 더불어 불도에 정진하는 마무리의 문장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정진하겠다는 춘원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팔정도의 어의와 내용에 대비되는 「원효대사」의 8장까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팔정도의 수행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연관성속에서 통일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즉 팔정도는 정견에서 시작하여 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통일된 정정의 상태에서 다시 正見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팔정도의 수행법 가운데서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한가는 말하기 어렵다. 정견에 따라서 정사유 내지 정정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고 邪見에 의해서 邪思 내지 邪定에 이른다⁴¹⁾는 경전내용을 통해 본다면 처음의 단계인 정견의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⁴²⁾

또한 팔정도에서는 正字의 개념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제시대와 같이 무엇이 진정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것인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미기준이 불확실한 시대에 춘원은 불교의 正과 邪의 개념을 분류하듯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제행무상의 정신으로 매진할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춘원이 의도적으로 팔정도와 연관성이 있는 8개의 장으로 「원효대사」를 구성했다는 데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0) 이광수, 앞의 책, p. 385.

41) 雜阿含經 28. 787, 大正 2. 204 上. 재인용.

「邪見者起邪志 邪語邪業邪命邪方便邪念邪定 是向邪者」

42) 박영동, 앞의 책, pp. 57-58.

IV. 결 론

지금까지 민족주의와 불교정신이 「원효대사」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팔정도와의 대비를 통한 「원효대사」의 서사구조를 검토해 보았다.

춘원은 신라정신인 화랑정신과 불교정신인 일심사상과 무애사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독립에의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였다. 이는 「원효대사」의 구조가 팔정도와 대비되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춘원은 등장인물을 통해서도 독립에의 강한 집착을 전하고 싶어했다.

먼저 원효를 통해서도 자신이 독립운동에 나서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요석공주와 아사가를 통하여는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따라줄 동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자신의 정신적 버팀목인 도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심약한 춘원의 바람. 그는 원효가 되어 요석공주와 아사와 같은 두 부인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여 독립운동에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고 싶은 생각을 이 작품 속에 투영시키고자 했다.

「원효대사」는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무정」이 매일신보에 발표되었고 또 「원효대사」가 같은 신문의 지면에 실렸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묘한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춘원이 살던 시기는 일제시대였다. 이 시대적 조건을 전제로 「원효대사」의 가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우리말로 발표한 역사소설이라는 점이다. 그 당시가 일제치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군다나 조선어로써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은 춘원만이 할 수 있는 모험이다.

둘째, 춘원이 「원효대사」의 서문에서 밝힌 대로 민족주의를 지향한 소설이라는 점이다. 이광수=원효=민족주의라는 등식 아래 이 작품을 집필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신라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소설이라는 점이다. 춘원의 해박한 지식으로 원효와 요석공주의 이름의 유래와 화랑도의 유래 등 각종 어원과 문화적 지식들이 폭넓고 상세하게 쓰여져 있다.

넷째, 대중지향적 소설이라는 점이다. 신문연재소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원효를 사이에 둔 요석공주와 아가사의 연적관계를 그림으로써 독자의 흥미

를 유발한 대중지향적 소설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구성에 있어서 불교의 팔정도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점이다. 이는 곧 춘원이 구도자의 자세로 이 소설을 썼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신라정신의 모태인 세속오계를 바탕으로 한 화랑정신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평등정신을 실천한 불교정신의 구현에 있다. 화랑정신과 불교정신을 좇아 온 국민이 단결할 때만이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춘원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춘원이 이 작품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화랑정신과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그는 화랑정신과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합심단결하여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한 친일적 행동으로 인하여 「원효대사」에서 보인 그의 민족주의자로서의 행위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춘원이 그 당시에 민족의 주권회복을 위한 진정한 민족주의를 현실적으로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이 일제치하인 불행한 환경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나름의 절실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마음 본질 그대로 얼굴에 표하기를 원하나,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성격은 의리에 있어서 편협하도록 힘과 열을 아끼지 않으나 항상 과단성이 부족하여 오해받는 일이 많습니다.⁴³⁾

이는 춘원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 자화상이다. 그는 자신의 과단성이 부족함을 스스로 시인하였던 것이다. 이 글이 발표된 1938년 이후 식민지 치하의 급박한 사회 정세의 변동과 더불어 그의 궤절은 시작되어 1945년의 조국 광복까지 지속되었다.⁴⁴⁾

그러나 그는 적어도 「원효대사」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지론의 일단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간접적이나

43) 이광수, 「나의 자서전」(『삼천리 문학』 제1집, 이광수 전집 제 20권, 삼중당, 1938.) p.120. 재인용.

44) 전광용, 이광수의 문학사적 위치,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새문사, 1994.) p. 60.

마 자신도 계속 독립운동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는 가고 우리는 남았다. 춘원의 삶이 곧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삶인 것이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고순호, 「불교학개론」 선문출판사, 1983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8.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 동화출판공사, 1981.
이광수, 「나의 자서전」 제1집, 이광수전집 제20권, 삼중당, 1938.
전광용, 이광수의 문학사적 위치,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 1994, 3쇄.
천이두, 「한국소설의 관점」 문학과 지성사, 1980.
화심철량, 「원시불교의 실천철학」 동경, 암파서점, 1971.
잡아함경 28. 787, 大正 2. 204 上.

2. 논문

- 곽 근, 「이광수 역사소설 속의 신라정신」 동악어문논집 38집, 동악어문학회, 2001.
박영동, 「8정도 수행법과 심리치료」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백낙청,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문학과 지성』 2호, 1967, 봄호.
이효령, 「원효의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II. 외국문헌

- Luria, H., 「The role of speech in the regulation of normal and abnormal behavior」 New York : Liveright, 1961.

[ABSTRACT]

A Study on Lee Kwang-su's Work "Great Priest Wonhyo"

Nam In Hyeon

"Great Priest Wonhyo" was a long story published serially on "Maeil Newspaper", an organ of Japanese Governor's Chamber, from March 1 to October 31, 1942. The novel consists of 184 installments. (It was not published from June 18 to July 6.)

Chunwon Lee Kwang-su tried to encourage our people's hope for independence through Hwarang Spirit of Shilla Kingdom and such Buddhistic thoughts as Single Mind and Infinity. Thus, he composed the work "Great Priest Wonhyo" into 8 chapters in consideration of 8 Righteous Ways of Buddhism.

In addition, Chunwon wanted to depict characters' strong insistence on independence. Hence, he made the readers know indirectly about his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the figure Wonhyo. Moreover, he expressed his desire to have his colleagues who could understand and follow him by featuring princess Yoseok and Asaga. Priest Daeon and monk Bangul emerge as the figures who teach us that Wonhyo could be a Hwaeom master. In this regard, Chunwon reminds us of Dosan.

Chunwon wished to succeed Dosan's legitimacy because the latter had been his spiritual support, although he had a weak mind. He himself becomes Wonhyo through this novel to enlighten all people together with princess Yoseok and Asaga to join the independence movement. Now, he is gone but we remain. In short, Chunwon's life represented our people's life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